

## MS/MBA 복수학위과정의 해외 운영 현황 및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조성우(제1연구자 및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swcho@yonsei.ac.kr)

강진아(공동저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  
(profkang@snu.ac.kr)

양희동(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hdyang@ewha.ac.kr)

이주성(공동저자)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  
(JSL@yonsei.ac.kr)

최근 국내에서 경영대학의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고위직의 55%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고 기업에서는 이들이 경영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길 원한다는 사회적 현상에 의해 이공계 학생들이 경영학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수학위제도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하나이다.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특정 분야를 전공하면서 동시에 MBA를 전공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의 경우 매우 많은 대학이 MS(Master of Science)/MBA 복수학위 과정을 비롯하여 MBA와 다른 학위와의 복수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MBA와 타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 과정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공과대학으로 대표될 수 있는 MS(Master of Science) 학위와 MBA 학위의 복수학위과정연계에 대해 현재 미국의 MS/MBA 현황 및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MS/MBA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입학과정, 교육기간, 학비, 교과과정, 학위수여요건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복수학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주제어: MS/MBA, 복수학위과정, 경영전문대학원, 이과대학원/공과대학원

### 1. 서론

현재 경영대학들이 경영전문대학원 발족과 운영으로 많은 투자와 질적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학과 타 전공간의 학제적 프로그램들이 탄생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프로그램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현재 서구의 프로그램들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복수학위의 지원여부를 들 수 있겠다. 복수학위제도란 여러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다수의 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할 경우 다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은 여러 개의 학위를 따로 취득할 때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학문이 함께 섞여 있는 독특한

게재확정일자: 2008. 0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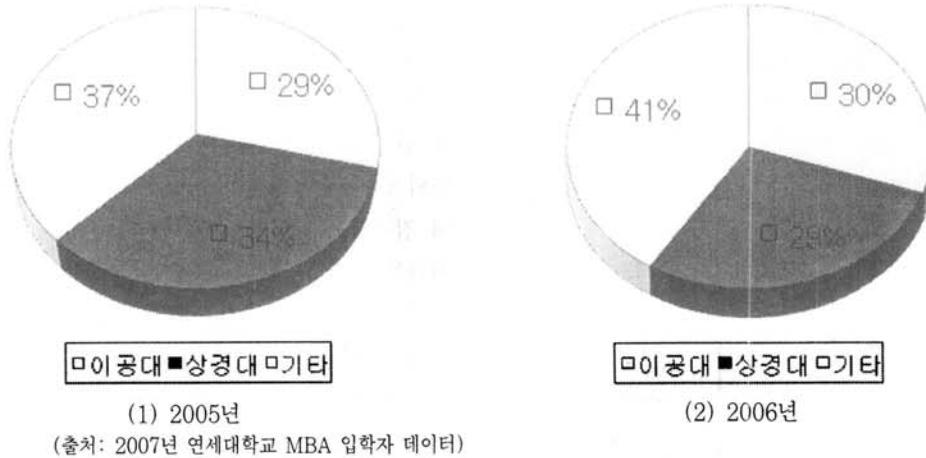
\* 본 논문은 한국경영학회의 지원으로 '2007년 한국경영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학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학위 제도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복수학위 제도상에서 여러 타 학문의 연계가 가능하겠으나, 본 논문은 그 중 기술(Technology)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의 석사학위인 MS(Master of Science)와 경영학의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의 접목을 통하여 이공계 출신이나 이 분야 종사자들의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공계-경영학의 복수학위 제도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경영대학들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경영대학에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왜 이 프로그램이 경영대학 입장에서 중요한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첫째, 현재 많은 학부 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복수전공으로 경영학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7년 1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구인력 채용 시, 전공 외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및 경영학 지식 등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기존 사회에 진출한 인재들 중 이공계 전공 인사가 과거에 비해 많은 숫자가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증가하고자 경영학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2007년 1월 28일)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중 19개 그룹 고위직 660명을 분석한 결과, 이공계 출신이 55.4%로, 작년(60.2%)에 이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경계는 25.7%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타임즈(2007년 4월 18일)는 이공계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또한 더 높은 수준으로 승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과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 교통·통신, 농수산, 국방, 교육 등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부터 범 부처적으로 추진해 온 이공계 출신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의 성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30퍼센트에 달하며, 5급 신규채용에서 기술직 비율이 이미 50퍼센트를 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듯,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2005년 29%(상경계 34%), 2006년 30%(상경계 29%)의 입학생들이 이공계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그림 1).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대학에서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이공계 출신 전공자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경영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리자로서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MS/MBA 복수학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으나 기술경영의 형태로서 학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운영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이 좋은 예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경영대학과 협동과정으로 운영하는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과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술경영 협동과정은 학교내의 두 기관(즉,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이 협력하여 별개 기관을 발족시키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모습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하나의 학위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즉, 공대의 우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MS 학위만을 줄 수 있고 경영대의 우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MBA 학위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위도 한 사람의 자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으로서는 노력을 경주한 만큼 마땅히 학위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그림 1〉 연세대학교 MBA 전공별 구성 비율

이를 고려한 학위 취득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는 길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I장은 복수학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서론이다. II장에서는 미국의 MS/MBA 복수학위제도를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제간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와 함께 MS/MBA의 국내도입가능성 및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IV장 결론에서는 소개된 사실을 정리하며 앞으로 MS/MBA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 II. 미국의 MS/MBA 복수학위

### 2.1 현황

미국의 MBA는 눈길을 끌만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700여개 대학에서 MBA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데, 경영대학의 MBA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의대나 법대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나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그리 쉽지 않은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내의 많은 기업들이 MBA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 매년 수만명의 MBA 소지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 전국대학교용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예술계는 임금이 29%, 공대는 39% 상승했으나 MBA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임금이 49%나 올랐다. 또한 소위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의 초봉은 경영학과 출신의 평균 초봉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S. News에서 2007년 Top business school로 선정한 20개 대학의 90% 이상이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http://www.findmba.com>), 이 중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과 MS/MBA 복수학위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12개로 전체의 60%에 달한다(표 1). 이것은 최근 MBA는 전문화와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경영

학과 타 전공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Top 20 경영대학 중 몇 개의 대학에 대해 집중하여 MS/MBA 복수학위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하고 그 외 특별한 형태의 복수학위에 대해 알아본다.

〈표 1〉 미국 Top 20 경영대학 중 MS/MBA 복수학위 제공 대학

순위	학교명	MS/MBA 학위 수여
1	Harvard	
2	Stanford	●
3	Univ. of Penn.	●
4	MIT	●
5	Northwestern	
6	Univ. of Chicago	
7	Columbia	●
8	UC Berkeley	
9	Dartmouth	●
10	UCLA	
11	Duke	●
12	Univ. of Michigan	●
13	NYU	●
14	Univ. of Virginia	●
15	Yale	
16	Carnegie Mellon	●
17	Cornell	●
18	Emory	
19	Univ. of Texas-Austin	●
20	Univ. of North Carolina	●

(<http://www.find-mba.com>)

## 2.2 교육과정

미국의 MS 과정은 보통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MBA 과정은 짧게는 1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보통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복수학위과정의 경우는 4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년 이하의 시간이 걸린다. 짧게는 2년 안에 학위과정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예: Purdue - Indiana 복수학위과정). 즉, 두 개의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필수과정만을 이수하면 학위과정의 대

부분을 마치게 된다.

복수학위과정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두 개의 학위과정이 처음부터 뒤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처음 2학기 정도의 기간은 경영학과의 필수 과목을 수강하는 데에 집중하고 나머지 2학기를 기타 연계 전공 과목이라든지 경영학과의 선택과목, 혹은 연계 전공의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형태의 경영학을 수강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과/공과대학의 전공 과목은 전공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여 나타내기 힘들지만 공통적인 점은 전공 필수 과목만을 듣도록 요구하며 필수 이수 학점 수 또한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많은 경우 경영대학의 필수 이수학점이 이과/공과대학의 필수 이수학점에 비해 많다.

## 2.3 복수학위 사례조사

### 2.3.1 Columbia University

#### 2.3.1.1 입학과정

컬럼비아대학교의 컬럼비아 경영대학(Columbia Business School, CBS)은 학교 내의 11개 타 대학원들과 협력하여, 법학, 간호학, 저널리즘 등의 광범위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5개의 학위가 MS/MBA의 복수학위이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원자는 각각의 대학원(경영대학원, 일반대학원)에 응시하고 입학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응시시기에 있어서는 각각의 대학원에 동시에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의 대학원 과정이 절반이상 진행되기 전에도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응시가 가능하다.

#### 2.3.1.2 교육기간

MBA 학위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7학점의 필

수과목과 33학점의 선택과목을 꼭 들어야만 한다. 한 학기에 15학점을 이수하며 따라서 전체 60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학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수학위 프로그램에서 MBA 과정을 졸업하려면 최소 3학기 (총 45학점) 이상 Full-Time 학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한 학기에 15학점을 이수하므로 45학점을 이수하려면 최소 3학기가 소요된다. 또한 각 연계 전공에서는 24학점에서 30학점 정도를 이수하면 학위가 수여된다. 따라서 5학기에 복수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 2.3.1.3 수업료

학비는 각각의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Columbia university의 MBA의 경우는 2007년 현재 평균 약 \$67,000을 매년 지불해야 하며, 일반대학원은 각 대학원에 따라 학비가 차이를 보인다.

### 2.3.1.4 교과과정

학기당 최소 이수 학점은 Full-Time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학위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에서 총 27학점이 필요하며, 동일한 과목일지라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은 면제를 받을 수 없으나 과목 면제시험을 통과하면 필수과목이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 필수 과목을 면제받았다 할 지라도 복수학위 MBA 프로그램 총 이수학점인 45학점은 꼭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커리큘럼상 복수학위 MBA를 위한 학생들은 필수 과목 제도와 Cluster 제도 때문에 MBA 과정 처음 2학기를 연속해서 수강해야 한다.

### 2.3.1.5 학위수여요건

복수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학원 졸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MBA과정과 MS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학위를 수여한다. 각 대학별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이수학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3.2 University of Michigan

### 2.3.2.1 입학과정

University of Michigan은 총 23개의 MBA 관련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0개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MS/MBA 과정이다. 또한 학생이 원한다면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쳐 리스트상에 있지 않은 전공 간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 복수학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표 2〉 컬럼비아 대학 복수학위 각 대학별 이수학점

학과	학위	학점이수		비고
		MBA	MS	
Architecture	MBA and MS	45학점	45학점	* urban planning 과정만 이수 가능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	MBA and MS	45학점	24학점	*금융공학 30학점
Journalism	MBA and MS	45학점	30학점	
Nursing	MBA and MS	45학점	30학점	
Social Work	MBA and MS	45학점	45학점	

(<http://www0.gsb.columbia.edu/students/services/inclass/dualdegrees>)

학위 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 학기 이상을 보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타 전공으로 복수학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타 전공의 입학허가는 그 전공 학과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MS/MBA 복수학위를 지원하는 지원자는 MS 전공 학과나 MBA에 입학한 후 다른 전공을 택할 수 있다.

### 2.3.2.2 교육기간

정규 MBA와 MS 과정을 마치는데 보통의 경우 각각 2년씩이 소요된다. 하지만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데에는 대개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충분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대부분 최초 1년의 시간을 한 대학에서 보내고 다음 1년의 시간을 다른 대학에서 보내고 마지막 1년의 시간을 두 대학을 왕복하며 지낸다. 하지만 하나의 학기에는 하나의 대학에 있는 과목들만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두 대학 사이를 왕복하며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한 전공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덧붙여, 전체 기간 중 3학기의 기간은 반드시 business school의 과목만을 들어야 한다.

### 2.3.2.3 수업료

2007년 현재 University of Michigan의 수업료는 MBA의 경우 평균 매년 \$51,665, MS의 경우 평균 매년 \$30,281을 지불한다. 그러나 MS의 경우 대학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 2.3.2.4 교과과정

MBA 학위를 위해서는 전체 57학점을 받아야 하나, 이 중 12학점은 양 프로그램에서 카운트 되므로 실제로는 45학점만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MS 프로그램은 전공에 따라 30학점에서 42학점

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 중 약 10학점은 이중으로 계산되므로 18학점에서 3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전체로서는 2학점 내지 9학점의 수업을 더 듣게 되어 있어서 65학점에서 77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MBA 이수학점 45학점 중 29학점은 MBA 필수과목으로서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전공에서는 전체 요구학점의 60% 내지 80% 정도가 필수 이수과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3>에서 참조할 수 있다.

### 2.3.2.5 학위수여요건

복수학위과정에 따라 두 개의 학위가 동시에 주어지기도 하고 각각의 졸업요건을 만족시키면 각각의 학위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MBA와 연계된 MS복수학위의 경우는 두 개의 과정을 모두 이수했을 때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2.3.3 New York University

### 2.3.3.1 입학과정

NYU(New York University)는 경영대학(Stern School)의 MBA 과정과 예술과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GSAS)의 재무수학과(Mathematics in Finance, Courant Institute) 및 생물학과를 연계한 MS/MBA 복수학위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경영대와 이과대 모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학과와 생물학과를 연계한 MS/MBA 복수학위를 이수하기 위해 학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 학생은 두 개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지원할 수도 있고 수학과 혹은 생물학과에 입학한 후 1년 내에 MBA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도 있다.

### 2.3.3.2 교육기간

두 과정을 모두 합친 4년의 기간을 모두 보내는

〈표 3〉 University of Michigan의 복수학위 과정 목록

복수 학위 프로그램	타전공 필수학점	MBA 필수학점	전체 이수학점
M.B.A. (Business) and M.S.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2 (Admission Fall 2006 or later, 27 if admitted prior)	45	
M.B.A. (Business) and M.S.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18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45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The additional 2 hours can be registered for in either program. Total credit hours required $18 + 45 + 2 = 65$ .
M.B.A. (Business) and M.S.E. (Industrial Operations Engineering)	18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45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The additional 2 hours can be registered for in either program. Total credit hours required $18 + 45 + 2 = 65$ .
M.B.A. (Business) and M.S.E.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	18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45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The additional 2 hours can be registered for in either program. Total credit hours required $18 + 45 + 2 = 65$ .
M.B.A. (Business) and M.S.E. (TMI Industrial and Operational Engineering)	18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45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The additional 2 hours can be registered for in either program. Total credit hours required $18 + 45 + 2 = 65$ .
M.B.A. (Business) and M.S.E. (TMI Naval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18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45 (plus an additional 2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The additional 2 hours can be registered for in either program. Total credit hours required $18 + 45 + 2 = 65$ .
M.B.A. (Business) and M.S.I. (Information)	32 (plus an additional 4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45 (plus an additional 4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The additional 4 hours can be registered for in either program. Total credit hours required $32 + 45 + 4 = 81$ .
M.B.A. (Business) and M.U.P. (Urban Planning)	30 (plus an additional 9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45 (plus an additional 9 registered in either program)	The additional 9 hours can be registered for in either program. Total hours Total credit hours required $30 + 45 + 9 = 84$ .
M.B.A. (Business) and M.S. (Nursing Administration)	25	45	
M.B.A. (Business-Dearborn) and M.S.E.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Dearborn)	Verify with Dearborn.	Verify with Dearborn.	Verify with Dearborn.

(<http://www.bus.umich.edu/Academics/SpecialPrograms/DualDegrees/Default.htm>)

대신 총3년의 기간을 보내면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다.

### 2.3.3.3 수업료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한 양쪽 대학에 모두 각 학기마다 대학이 요구하는 수업료 총액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등록한 대학에서 허용한 최대 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2007년 현재 Stern School MBA 과정의 학기당 수업료는 \$20,911이며, Courant Insitute의 수학과는 학점당 수강료가 \$1,196이다.

### 2.3.3.4 교과과정 및 학위수여

전체 72학점의 교과과정이 두 대학에 나누어져

있다. 생물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GSAS에서 1년, Stern에서 1년, 양 대학을 번갈아 가며 1년을 보내야 한다. 전체 이수학점은 86학점으로 MBA과정에서 54학점, MS과정에서 32학점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프로그램 구성은 〈표 4〉와 같다.

생물학과/경영학과 복수학위의 전형적인 수강과정은 〈표 5〉와 같다.

수학과 복수학위는 과정이 약간 다르다. 처음 두 해는 Stern School과 Courant Institute에서 MBA 과목과 재무수학과목을 이수하는 데 집중한다. 이 때, 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후 1년간은 재무수학의 선택과목들을 이수한다. 또한 첫 2년 동안은 full-time으로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반면 2년간의 프로그램 이수 이후 수학과와 과

〈표 4〉 NYU MS(Biology)/MBA 복수학위 과정 교과구성

<b>MBA Program Outline</b>	
<i>Core</i>	28.5
<i>Professional Responsibility</i>	1.5
<i>Specialization Courses</i>	9.0
<i>Elective Courses</i>	15.0
<b>Total</b>	<b>54.0</b>

<b>Biology Program Outline</b>	
<i>Cell Biology</i>	4.0
<i>Biostatistics</i>	4.0
<i>Advanced Genetics</i>	4.0
<i>Biology Core</i>	2.0/2.0
<i>Electives</i>	16.0
<b>Total</b>	<b>32.0</b>

(<http://w4.stern.nyu.edu/admissions/fulltime>)

〈표 5〉 NYU MS(Biology)/MBA 복수학위 과정 수강 순서

	<b>Fall</b>	<b>Spring</b>	<b>Summer</b>
<i>First Year</i>	<i>Cell Biology (4.0), Biostatistics (4.0), Biology Elective Course (4.0)</i>	<i>Advanced Genetics (4.0), Biology Elective Courses (8.0)</i>	<i>Biology Core (2.0), Biology Elective Course (4.0)</i>
<i>Second Year</i>	<i>MBA Core Requirements (15.0)</i>	<i>MBA Menu Core &amp; Electives (15.0)</i>	
<i>Third Year</i>	<i>Professional Responsibility (1.5), Stern Elective Courses (7.5), Biology Core (2.0)</i>	<i>Stern Elective Courses (15.0)</i>	

([http://w4.stern.nyu.edu/admissions/fulltime/innovativecurricula.cfm?doc\\_id=828](http://w4.stern.nyu.edu/admissions/fulltime/innovativecurricula.cfm?doc_id=828))

목은 자신의 직업을 가진 채로 part-time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전형적인 수강과정은 다음과 같다.

### 2.3.4 Purdue University -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와 Indiana university는 미국의 Top 20 경영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

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 학교 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학과가 연계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이하게도 서로 다른 두 학교가 연계하여 MS/MBA의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한다. Purdue에서는 공과대학의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Indiana에서는 경영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을 수 있다(<http://purduekelley.iupui.edu>).

〈표 6〉 NYU MS(Biology)/MBA 복수학위 과정 수강 순서

<b>Fall – year 1 (15 credits)</b>	<b>Spring – year 1 (15 credits)</b>
Accounting (Stern core - required)	Stern core – menu selection 3
Stern core – menu selection 1	Stern core – menu selection 4
Stern core – menu selection 2	Stern core – menu selection 5
Math Finance – Stochastic Calculus	Math Finance – Scientific Computing
Math Finance – Computing in Finance	Math Finance – Derivative Securities
<b>Fall – year 2 (15 credits)</b>	<b>Spring – year 2 (15 credits)</b>
Stern Prof Resp. (1.5 credits) + Stern elective (1.5 credits)	Stern elective
Stern elective	Stern elective
Stern elective	Stern elective
Math Finance – Cont Time Finance	Math Finance– Comp Methods for Finance
Math Finance – intermediate elective	Math Finance – intermediate elective
<b>Fall – year 3 (6 credits)</b>	<b>Spring – year 3 (6 credits)</b>
Math Finance MS – advanced elective	Math Finance MS – project
Math Finance MS – advanced elective	Math Finance MS – advanced elective

(<http://w4.stern.nyu.edu/admissions/fulltime>)

#### 2.3.4.1 입학과정

Purdue 대학의 공과대학(Engineering)은 Indiana 대학의 Kelly 경영대학원과 협력하여 원거리 복수학위 MBA 프로그램(MBA/MSE)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두 학교에서 공동으로 입학프로세스가 존재하며, 지원자는 우선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urdue의 각 대학원에 지원함으로써 입학프로세스가 진행된다. Purdue에서 입학원서를 먼저 검토하고, Kelly School 에서 지원자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공동으로 입학자를 선정한다. GRE 점수는 요구하지 않으며, GMAT 점수는 필수이다.

#### 2.3.4.2 교육기간

복수학위를 받으려면 전체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15학점을 이수한다

면 4학기의 기간이 걸리게 된다.

#### 2.3.4.3 수업료

본 MSE - MBA 을 이수하기 위해서 드는 학비는 Purdue MSE 과정 총 21학점 \$17,569, Kelly Online MBA 과정 총 39학점 \$34,125로 총 \$51,694 이다.

#### 2.3.4.4 교과과정

본 복수학위 MBA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MBA 과정에서 스트리밍 비디오, DVD,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이 주를 이루며, 각 course 에 따라 1주정도의 일정으로 각 학교에 출석하여 Off-Line 수업을 받는다. 본 복수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총 학점은 최소 60 학점으로, Purdue 에

서 제공하는 공학 관련 과목에서 21 학점, Kelly 경영대학원에서 36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3학점은 Purdue 나 Kelly 경영대학원에서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 학기 평점을 평가하여 drop 시키는 데, 두 학교에서 모두 4.0 만점에 평균 3.0 이상이 넘어야 한다. 또한, 본 복수학위 과정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필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Engineering Specialization Area에서 12 학점, Area Bridge Courses 에서 15학점, Business/Management Specialization Area에서 3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Bridge course는 공대와 경영대를 이어줄 수 있는 과목들을 제공하는데 다음 4개의 분야가 그것들이다: 경제학 (Economics), 오퍼레이션 (Operations),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 2.3.4.5 학위수여요건

Purdue 에서의 18학점을 포함하여 최소한 30 학점을 이수하고 난 학생에게는 Purdue로부터 MSE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학생은 매학기 최소한 3.0의 GPA 를 받아야만 한다. 이 학점을 유지한다면 60학점을 이수한 후에 Kelly school 에서 MBA 학위가 주어지게 된다.

#### 2.3.5 기타 학제간 연계 프로그램

위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 있는 복수 학위과정 혹은 학제간 연계과정이 있다. Stanford University의 복수학위과정, MIT의 MOT(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경영)과정,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Wharton School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부대학 연계과정이 그것이다.

Stanford는 환경자원학과(Environment and Resources)와 MBA를 연계한 복수학위과정이 있

다. 우선 MBA과정에 입학한 후 복수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데, 다른 대학과는 틀리게 요구학점 수가 높다. 경영대학에서 8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지구과학대학(School of Earth Sciences)에서 45학점을 이수하여 총 129학점의 이수가 필요하다. 이는 semester제가 아닌 quarter제로 운영되는 수업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MBA학위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0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MIT는 MS/MBA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MIT의 복수학위과정은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매우 이색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으나 복수학위과정이 아닌 MOT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 여겨 볼 만한 점이 있다. 대부분(68%)의 MOT과정이 경영대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MIT의 MOT는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의 협동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S. Nambisan, 2003). MIT의 MOT는 박사과정인 TMP(Technology, Management, and Policy)와 석사과정인 TPP (Technology and Policy Program) 및 LMF (Leaders for Manufacturing) 등의 여타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MOT 프로그램의 특징은 경영학의 전반적인 지식이 아닌 특정 기술에 필요한 경영/정책적인 심화된 지식을 배우는 데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종류도 특화된 것들이 많은데 MIT의 경우 국제모터차량 프로그램, 항공우주 이니셔티브, 고속유연생산, 커뮤니케이션정책 연구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포럼, 재료시스템 연구, 기술과 법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R. de Neufville, 2001). 프로그램의 구조는 대체로 공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 사회과학의 지식이 접목된 형태이다.

Wharton School은 Jerome Fisher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학부 개설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Jerome Fisher 프로그램은 공과대학(Penn Engineering)과 경영대학(Wharton School)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학생들은 개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고, 공과대학의 과목과 경영대학을 연계하는 특별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뛰어난 자질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III. MS/MBA 복수학위의 국내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에는 MS/MBA의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 즉, 학생들이 원한다면 따로 신청하여 학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수학점의 압축이라든지 학문적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알찬 교육과정을 밟아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혔듯이 MBA와 여타 다른 학위(MD 혹은 JD)와의 복수학위에 비해 MS/MBA의 복수학위는 재계와 학계에서 큰 필요성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에 발 맞추어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의 학생들에게 경영학적 지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최근 생겨나고 있다. 학제간 기술경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3.1 우리나라의 학제간 기술경영 프로그램 현황

우리나라에서 석사과정으로서 이공대학과 경영대학을 본격적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은 학사과정에서 나타난다. 복수전공 혹은 이중전공이라 불리는 프로그램도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대부분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복수 학위

이수자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이 아닌 양쪽 전공의 특화된 지식만의 이수라는 점이 복수전공 커리큘럼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인 범위를 넓힌 연합과정들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그리고 연세대의 기술경영 협동과정인 그것이다. 그 외 기술경영 프로그램은 아니나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의 특성상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KAIST의 Techno MBA 과정이 있다.

##### 3.1.1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KAIST는 1980년에 이/공과대학으로만 이루어진 학교구성에 최초로 경영과학과를 설치한 이후 1996년 서울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최초 신입생을 받고 이후 2002년 학/석사 연계과정을 도입하여 현재 35명의 교수진과 478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영기술 접목과정이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경영공학의 학/석/박사 과정이 있고 그 외 Techno MBA, Innovation MBA (직장인 대상), Executive MBA (주말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Techno MBA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8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마케팅 (Marketing) Track
2. 회계, 재무 (Accounting & Finance) Track
3. MIS 집중분야 Track
4. 전략 및 조직 (Strategy & Organization Management) Track
5. 벤처 경영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Track
6. 기술생산 (Technology and Operations Management) Track
7. 환경경영 (Environment Management) Track

8. 경영과 법(Management and Law) Track

3.1.2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서울대학교의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TEMAP,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은 1994년 기술정책전공 출범을 시작으로 2000년 신입생을 선발하여 현재 기술정책과정과 기술경영과정을 합병한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현재 9명의 전임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석사과정 60명 박사과정 53명 등 총 113명의 재학생이 TEMAP 과정을 밟고 있다.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4개의 track 으로 나뉜다.

1. Class: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경제학 관련, 공학 및 행정학, 세미나
2. Seminar: 기술경영경제정책세미나, 명사초청 세미나, 첨단기술강좌, 미시, 계량 경제학 세미나
3. Research and Dissertation Course: 연구, 논문 관련 학습
4. Extra Curriculum: 영어회화, 5분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논술 학습, 에티켓 강의, 리더쉽 강의

또한 이 과정의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은 8개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생산성 및 경쟁력, 정보통신, 기술가치평가, 산업구조정책, 기술경영, 벤처경영 및 정책, 첨단기술산업정책, 기술전략연구.

3.1.3 연세대학교 기술경영 협동과정

연세대학교의 MOT 프로그램은 1997년 대학원

과정으로서 처음 시작되었다(K. Oh, 2006). 이후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해 학사 과정을 포함하게 되어 현재 Technology Management, Engineering Economics, Techno-Leadership, 와 Engineering Accounting과 같은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은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이 있으며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이 합동하여 과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단, 학사과정은 산업정보공학과가 관리한다.) 현재는 50명의 대학원생과 300명의 학부학생들이 MOT 교육을 받고 있다(J. Lee, 2007). 학생들은 졸업 이후 정부, 산업체, 연구소, 대학, 컨설팅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목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Organization Management Track
2. Market Management Track
3. Technology Management Track
4. Strategy Management Track
5. Finance/Investment Management Track

3.2 한국형 MS/MBA 학위 개발

최근 한국형 MBA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과거와 달리 경영대학들이 경영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쏟는 노력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진행되지 않았던 MBA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MS/MBA의 논의도 시작되고 있으나<sup>1)</sup> 아직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MS/MBA 복수학위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1) 예: 2007년 한국경영학회 춘계 심포지엄: '법학, 의학·보건학, 공학과 복수학위 MBA 프로그램'

### 3.2.1 교육기간

우리나라의 MBA 과정은 1년 내지 2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년 과정의 경우는 여름과 겨울방학 없이 단기간에 압축된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전체 교과과정이 2년 과정에 비해 약간 축소되었으나 필수과목의 수는 거의 비슷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MBA과정은 2년 과정과 1년 과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나 대체적으로 1년 과정으로 줄여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MBA과정은 대부분 2년 과정이다. 따라서 1년 기간의 MBA와 같은 입장에서 논의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 혹은 교육과정을 줄이는 것은 복수학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의 하나로서 필수적이다.

2년 과정이나 1년 과정은 과정의 길이와는 관계없이 전체 4학기의 졸업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타 전공의 과목을 인정하여 기간으로 산정해 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학기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한 학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학생들이 한 학기에 평균 15학점의 수업을 수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두 학기의 시간은 최대한 30학점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기간이다. 30학점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경영대학에서 이미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러한 융통성 없는 교육기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경영대학에서는 최소한 두 학기 이상의 필수과목 이수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선택과목을 고려한다면 3학기의 기간이 부실한 교육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학생에게 학위 취득의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줄여든 한 학기의 기간은 타 전공과의 연

계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대학의 재량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만일 똑 같은 논리가 이과/공과대학에 적용될 수 있다면 졸업에 필요한 전체 기간의 4분의 1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 학과에 따라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무어라 단정짓기 힘들다. 다만 학생들의 필요성과 학과 교과과정의 유연성에 따라 MBA와 연계 가능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이과/공과대학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학과가 존재하고 학과별 혹은 학과 내의 분야별로 교과과정의 유연성이 다를 것이므로 이 가운데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양 대학에게 유리한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년의 MBA과정과 연계된 2년의 MS 과정을 2년 반 이내에 마치고 (2년의 MBA 과정에 연계되었을 경우 3년 이내)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 3.2.2 이수학점 및 교과과목

필수과목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교과과정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과 비율이다. 학생들의 수강 학점이 전체 학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4학기의 과정에서 한 학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25%의 과목을 줄여야 한다. 만일 50% 이상이 필수과목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과정을 필수과목만으로 채울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복수학위가 줄 수 있는 연계 학문의 학습 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필수과목은 50% 이하로 유지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 전공 과목의 이수를 이종으로 계산하여 인정해 줄 수 있는 선택과목의 비율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조사했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TOP 20 경영대학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 이수학점의 45% 이하 수준으로 필수과목을 선정하고 있다. 물론 평균적으로 60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학점에 가까운 필수 학점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졸업이수학점이 대개 45에서 60학점 사이이므로 45% 이하의 필수과목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졸업이수학점정책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수학점의 50%를 필수과목으로 채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계산으로 48학점의 졸업이수학점정책을 유지하는 경영대학의 경우 3학점의 과목을 8개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나머지 50%의 선택과목 중에서 타 전공과 이종으로 계산될 수 있는 과목의 비율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밝혔듯이 약 25%의 기간을 줄여야 복수학위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5% 이상의 이종 계산 과목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학문의 성격이 너무나 확연히 달라 이종으로 계산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많은 타분야(이과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등)와의 연계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복수학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미

〈표 7〉 University of Michigan MS(IOE,산업공학)/MBA 복수학위 교과과정 예

**Year 1**

Fall Term Courses	Credits
Accounting 502	2.25
Marketing 503	2.25
Business Economics 502	2.25
Strategy 502	2.25
OMS 502	2.25
Finance 503 or 513	2.25
MO 503	2.25
<b>Total</b>	<b>15.75</b>

Winter Term Courses	Credits
Accounting 552	2.25
Operations Management 552	2.25
MAP - BA 553	7.5
Business Elective	2.25
<b>Total</b>	<b>14.25</b>

**Year 2**

Fall Term Courses	Credits
Business Law or Ethics	1.5
Business Electives	4.5
IOE Electives	9
<b>Total</b>	<b>15</b>

Winter Term Courses	Credits
Business Electives	7.5
IOE Electives	6
Strategy 503	1.5
<b>Total</b>	<b>15</b>

**Year 3\***

Fall Term Courses	Credits
IOE Elective	3
Independent Study	2
<b>Total</b>	<b>5</b>

\* May be completed between first and second year or the spring, summer, or fall following the second year  
 (<http://www.bus.umich.edu/Academics/SpecialPrograms/DualDegrees/>)

루어 생각해 수 있다. 즉, 이러한 이중 계산 과목을 어떻게 산정해 낼 수 있을지가 MBA 과정이 여타 석사 과정과 연계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진행하고 있는 MOT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연계하고 있는 학문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학문의 영역을 찾고 경영학에서 그 비중을 도출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모든 타 전공과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연구가 될 것이므로 소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비교적 타 전공에 비해 경영학과 매우 인접한 학문인 산업공학과 경영학이 연계되었을 경우의 교육과정을 University of Michigan의 교육과정을 예로 들어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 3.2.3 기타 고려사항

2007년 한국경영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 공학도도 경영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운영방법론에 있어서는 분야별 입장에 따라 이견을 보였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점은 교과목 체제와 교수 인력 문제 등의 내용적 문제였다. 즉 어떤 분야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학생 인력의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떠올 수 밖에 없다. 타 전공의 학생이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자신의 전공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과/공과대학의 연구실 운영 현황으로 볼 때 한 연구팀의 커다란 인력 손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인력 이동의 일방향성으로 인해 무게 중심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즉, 경영학을 전공하던 학생이 이과/공과대학을 전공하길는 힘들지만 이과/공과대학의 학

생은 비교적 경영학에 접근하기 쉽고 또 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과/공과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행보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경영대학과 상호 협력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복수학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꼭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로서 다시 한 번 미국의 복수학위 운영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lumbia University나 University of Michigan의 경우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학위의 졸업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한다. 즉, 이과/공과대학의 학생이 MBA와 MS를 동시에 취득하기 위해 복수학위과정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MBA 학위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본래 전공에 소홀히 할 이유가 없고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무모한 학위과정 신청도 억제할 수 있다. NYU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라 볼 수 있다. NYU는 본래 공과대학이 없으므로 공과대학과의 복수전공제도는 만들 수 없다. 대신 Stern School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는 Courant Institute의 수학과와 연계된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한다. NYU는 학생이 2년 동안 MBA 과정을 마치고 나면 MBA 학위를 바로 수여하고 이후는 재무수학과(Math in Finance)의 수업을 part-time으로 듣게 한다. 단, MBA 학위과정 중 재무수학과 과목을 일정 수준 수강해야 한다. 이 과목들은 MBA 과정의 선택과목의 일부로서 인정 받는다. NYU는 전통적으로 응용수학분야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수학과와 경영학과 사이에 복수학위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MBA 학위를 취득한 뒤에도 따로 재무수학을 배

우기 위해 재입학을 해야 할 필요 없이 part-time 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력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Purdue-Indiana의 경우처럼 지리적인 분리성을 이용하여 교과과정을 기간별로 나누어 1년씩 한 전공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컨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대학 간 학생 편중의 불공정성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기업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순 혁신보다 전체적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양성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공계 출신의 관리자 계층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공계 출신의 관리자가 50%를 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서 이공계 출신의 관리자에 대한 경영학적 지식/마인드의 습득은 필수 불가결하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타 전공(법과대학, 의과대학 등)과는 달리 기술 혹은 이/공학과 경영학과의 접목은 학생, 학교, 기업체 등 모든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진행효과도 보이고 있다.

대학에서는 경영대학이나 공과대학 모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이 힘을 합쳐 하나의 협동과정을 운영한다든지 혹은 공과대학 내에 경영학을 가르치는 소분야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발 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물

론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수학위 과정의 관리에 대하여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이 갈등구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용적으로 교과목 체제 구축과 교수 인력 지원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는 공식적인 경영학/공학의 수업을 위한 인증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학업의 주체가 경영학은 경영대학, 공학은 공과대학이 맡아야 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연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느슨하게 묶여 있는 제도적 상황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예로부터 볼 수 있듯이 복수학위에 대한 운영은 지극히 학생들의 요구에 맞도록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올바른 진행방향일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세분화된 전공에 따라 커리큘럼을 조절하고 이에 합당한 졸업 요건과 이수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복되는 과정의 경우 과감히 삭제해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필수이수과목에서 면제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Purdue-Indiana와 같은 경우에 처처럼 서로 다른 학교 간에도 복수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적인 결과로 인정되어 복수학위 취득자에게는 하나의 학위 취득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이익이 똑같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즉, 유명무실한 복수학위 과정이 아닌 대학 안팎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의 본격적인 대협력이 선결과제이다. 그것이 경영대 주도이든 공대 주도이든, 아니면 독립적인 협력 과정이든, 모든 참여 대학은 책임감을 가지고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과목 체제와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지원 문제, 그리고 학내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 등 많은 문제에 있어서 두 대학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각 분야 대학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의 행정적/재원적인 지원이 없이는 복수학위 체제가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맞는 형태로써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하는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정부의 의지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MS/MBA 복수학위를 제공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실제 필요성에 있어서나 진행 현황에 있어 조금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운영의 문제에 의해 많은 진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학교들은 학생이나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디지털 타임즈, 이공계 공직 진출 현황 자료, 2007. 4. 18.  
한국경제, 국내 그룹 고위직 출신 학교 분포 자료, 2007. 1. 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7), 기업이 대학에 바라는 이공계 교육.
- de Neufville, R. (2001), "The Emerging Curriculum for Engine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Policy and Management*, 1(2) 117-127.
- Lee, J. (2007), Trends and Demands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Education, *IE Magazin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Special Issue (forthcoming).
- Nambisan, S. and D. Wilemon (2003), "A global study of graduate Management of technology programs, *Technovation*," 23, 949-962.
- Oh, K. J., H. Park, W. Kim, and C. S. Leem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ngineering-Management Program for Revitalization of Science/Engineering Students, *Conference Proceedings of Korea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 세계 MBA 프로그램 검색 엔진 (2007), <http://www.find-mba.com>.
- Columbia Business School Dual Degree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www0.gsb.columbia.edu/students/services/inclass/dualdegrees>.
-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dual degree program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w4.stern.nyu.edu/admissions/fulltime/innovativecurricula.cfm?doc\\_id=828](http://w4.stern.nyu.edu/admissions/fulltime/innovativecurricula.cfm?doc_id=828).
- Purdue Engineering - Kelley School of Business (MSE-MBA)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purduekelley.iupui.edu>.
- University of Michigan, Ross School of Business, dual degree program 공식 홈페이지 (2007), <http://www.bus.umich.edu/Academics/SpecialPrograms/DualDegrees/Default.htm>.

## The MS/MBA Dual Degree Program: An Examination of U.S. Schools and Analysis of Implementation in Korean Schools\*

Sung-woo Cho\*\* · Jina Kang\*\*\* · Hee-Dong Yang\*\*\*\* · Joo Sung Lee\*\*\*\*\*

### Abstract

Recently, we are seeing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programs and degrees amongst potential students in Korea. More than 55% of high-level business executives in Korean companies are from engineering or science schools and companies want them to be trained in business skills. This social phenomenon increases the necessity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o learn more about business and for firms to demand business skills from engineering and science graduates. Dual degree program is one way for them to fulfill this purpose. Since students who want to acquire both degrees can save their time and money by participating in dual degree programs, many universities in the U.S. provide several dual degree programs including a dual degree combining MS (Master of Science) and MBA degrees.

Currently no business school in Korea runs a MS/MBA dual degree program. This paper studies some cases of the MS/MBA programs in the U.S. and analyzes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Korea.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admission process, education period, tuition fees, course requirement, and degree requirement of MS/MBA programs in the U.S. and discuss possibility and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rogram in Korean schools.

Key Words: MS/MBA, dual degree program, business school, school of science and engineering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 partial vers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2007 Spring Symposium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 Strategy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TEMEP),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Information and Industri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